



第13代 總選 時期問題 檢討

87. 7

1. 狀 況

- 현시점은 6.29宣言이후 고조된 지지분위기를 대통령선거시 득표로 연결 第5共和國 第2期 창출에 총력을 경주할 시기
- 이와관련 최우선 과제는 改憲問題를 비롯 大統領選舉法 등을 둘러싼 對野 協商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
- 國會議員選舉는 大統領選舉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개헌안 협상, 대통령선거, 정부이양으로 이어지는 政治日程 작업을 무리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시시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

2. 總選 實施時期 問題 檢討

[第1案] 政府移讓前 大統領選舉와 동시 實施

<長 點>

- 與圈이 兩大選舉에서 부작용없이 압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중요한 선거행사를 한꺼번에 치루게 됨으로써 政府와 議會가 새로운 기본으로 올림픽 大事에 임할 수 있다는 점
- 야당 공천과정에서 兩金勢力간 持分爭奪과 早期總選을 기대하고 있는 野圈내 입지희망 院外人物들의 공천신청 쇄도로 野圈내부 분열 기대

- 金泳三이 大統領選舉에 곧이어 國會議員選舉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對野 협상이 비교적 용이
- 野黨 國會議員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國會議員 選舉法 협상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여당이 大統領選舉法 협상에 유리한 고지 확보 기대
- 兩大選舉를 동시에 치루게 됨으로써 자금동원력이 약한 野黨的 입장에서 볼 때 득표전략에 부담
- 만일 국민들이 大統領은 與黨, 國會議員은 野黨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나타날 경우 제5공화국 체제 유지 무난

<短 點>

- 與黨候補들이 公薦·當選 등 개인적 이해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운명을 건 大統領選舉 결전에 소홀히 임할 가능성 다대
- 有權者들간에 정권을 교체해보자는 心理가 작용하게 될 경우 자칫 大統領은 野黨, 國會議員은 與黨으로 교대 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중대한 국면에 봉착할 위험성
- 대통령선거 하나만으로도 國論分裂, 地域感情 誘發, 煽動政治 등으로 정국혼란이 우려되는데도 국회의원선거마저 동시에 치루게 되면 전국이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되고 효율적인 選舉管理業務의 기대난으로 엄청난 정국혼돈이 우려

- 여·야 협상과 관련 大統領選舉法에다 國會議員選舉法 문제까지 동시에 다루게 됨으로써 자칫 국회의원선거법을 소홀히 다루어 野圈에 대폭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與黨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어 6.29宣言의 열기를 유지하는데 지장 초래 우려
- 兩金이 야권의 국회의원 公薦權을 대통령출마 여건으로 최대한 이용할 경우 兩金 영향력 증대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온건 야당이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
- 또한 兩金이 야권내 분열을 의식, 역할분담 (대통령 : 총재, 교대 집권 등)을 통한 早期에 野圈 대통령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야권 단합계기 조성 우려
- 大統領選舉에서 고조된 분위기가 곧바로 국회의원선거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야당 붕조성이 용이
- 국민적 관심의 초점은 대통령직선제에 있는 만큼 굳이 國會를 解散하면서까지 國會議員選舉를 앞당겨 치루어야 할 필요성 별무

[第2案] 政府移讓 이후 適期에 總選實施 (國會解散 前提)

<長 點>

- 大統領選舉 時期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실시하게 됨으로써 公薦과 當選을 의식한 여권의 戰力分散을 막을 수 있고 결국 여권 전체가 일치단결 대통령선거에 전력투구가 가능
-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野黨과 國會議員選舉法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大統領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협상 모두에 유리한 고지 점령 가능

- 대통령선거 승리시 따르게 되는 有權者의 執權黨 견제심리 해소가 가능함으로써 국회의원선거시 야당 지지성향 제어 효과
- 새 政府出帆 이후의 새로운 이미지와 함께 여권이 결집된 힘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할 수 있어 總選에서의 승리도 가능
- 중요한 政治行事を 적정한 간격을 두고 무리없이 치루게 됨으로써 國論分裂 및 國力浪費 방지와 함께 안정된 가운데 효율적인 國政運營이 가능

<短 點>

- 새로운 政府出帆 이후에도 국회의원선거와 전면적인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여·야간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
-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會議員 選舉가 맞물리게 됨으로써 지방의회 선거 과열 현상 초래 예상
- 金泳三이 금년내 總選實施를 주장하고 있어 개헌 및 大統領 選舉法을 위한 대야 협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[第3案] 現 國會任期滿了時 總選 實施

<長 點>

- 12代 國會 任期滿了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새 국회를 구성함으로써 국회해산에 이은 총선 등 변칙적인 방법의 관례화 방지

- 政府移讓과 올림픽 등 兩大事를 성공리에 치른 후 안정된 기반 위에서 總選을 치름으로써 여당후보의 득표전략에 유리
- 任期를 모두 채운후 선거를 치름으로써 대다수 여·야 현역의원들이 내심 찬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·야 협상에도 도움
- 大統領選舉 時期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실시하게 됨으로써 兩金의 영향력 축소와 함께 효과적인 선거관리 업무 수행 가능

<短 點>

- 1年餘 동안 개헌문제로 갈등·대립만 지속하던 國會를 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치시키게 됨으로써 대국민 이해설득 명분 미약
- 野黨이 국회의원선거법 문제를 계속 문제삼을 경우 정치적 부담 간존

3. 評 價

- 第1案은 중요한 선거행사를 한꺼번에 치루게 됨으로써 政府와 議會가 새로운 기본으로 올림픽 대사에 입할 수 있겠으나 (이는 어디까지나 與黨이 兩大選擧에서 모두 무리없이 승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)
 - 與黨議員들이 당선 등 개인적 이해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선거 결전을 소홀히 하기 쉽고
 - 전국이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되고 選舉管理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
 - 대통령선거법 협상과 겹치게 되어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.

* 第1案의 경우

- 공천과정에서 兩金 등 야권이 分裂·瓦解될 소지가 있다하나 兩金간 역할분담에 의한 候補單一化가 성사되고 지역구 반분에 합의하게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
 - 野黨議員들이 개인적 이해와 직결되는 國會議員選舉法 협상에 치중하게 되어 여측이 大統領選舉法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하나 野黨이 정권욕에 사로잡힌 兩金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大統領選舉法을 소홀히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
 - 兩大選擧를 한꺼번에 치름으로써 野黨이 자금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바람과 선동에 의존하고 있는 野黨 選舉戰略을 감안할 때 별의미가 없으며
 - 有權者 성향이 大統領은 與黨, 國會議員은 野黨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 유권자 성향이 정권을 교체하고 보자는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그 반대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수 있음.
- 이에 반해 第2案은 정부이양후 88.5의 지방의회의원 선거, 올림픽 등을 치루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會 選舉가 맞물리게 되어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정치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으나
- 국회의원선거에 따르는 여권내 전력분산을 막고 大統領選舉에 총력전을 경주할 수 있으며
 - 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을 총선 壓勝要因으로의 연결이 가능할 뿐아니라
 -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효율적인 國政運營과 올림픽을 치룰 수 있고
 - 國會議員 選舉支援을 빙자 야당바람을 일으키려는 兩金 등 야권의 의도를 견제하는 등의 이점이 있음.

- 第3案은 올림픽 열기를 총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시기적으로 政府移讓과 너무 거리가 멀어 대립과 갈등으로 접철되어온 12代 國會를 장기간 존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명분 미약
- 따라서 정부이양 이전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第1案은 정권을 교체해 보자는 유권자 심리가 작용할 경우 大統領選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하도록 하되 정부이양이후 地方議會議員 선거와 올림픽 등 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택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
- * 특히 만의 하나 大統領選舉에서 與黨이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상당기간 民正黨이 國會多數黨으로서 최소한의 국가 안정을 기하고 정치보복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도 第1案은 부적절함.